

49 |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요추 4-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염좌

성별	남	나이	36세	직종	제조업	업무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1 | 개 요

근로자 K는 2000년부터 A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10월에 요추 4-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진료시 추가적으로 경추염좌도 진단되었다.

2 | 작업내용 및 환경

A사는 가스절연부하개폐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근로자 K는 2000년 입사, 다중회로개폐기 조립,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조립, 포장 작업을 거쳐 2007년 4월 - 2008년 10월까지 GIS(Gas Insulated Sectionalizer)조립을 수행하였다. 이 작업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서, 상시적으로 배치되는 인원은 겨우 몇 명에 불과하며, 필요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 완성품을 만들게 된다. 이 작업 중 허리와 목을 숙이고 좌/우로 허리를 트는 자세를 취하게 되며, 무게 4-5kg, 15kg 정도의 부품을 수차례 옮겨가며 조립(완성까지 2-3개월 소요)을 하게 된다. 현장 방문조사 결과 허리부위에 심각한 부하를 줄 수 있는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 대부분 크레인을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작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 작업자세의 경우 전체 작업시간(약 9.5시간)을 고려할 때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었다. REBA를 이용하여 GIS공정 중 탱크 부스바조립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출평가 결과 총점수 평균은 3.4로 나타났다. Action Level은 1로 나타나 위험수준이 보통(AL= 2)이하로 나타났다. 한편,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파악된 몸통자세의 점수 수준은 최고수준 대비 48%였고 목자세 점수 수준은 57%로 나타났다.

3 | 의학적 소견

근로자 K는 A사 입사 이전에는 다른 전자회사에 5-6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며,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었고, 허리에 통증도 없었다고 하였다. 특별한 운동 및 취미생활은 하지 않았다. K는 2007년-2008년에 GIS 작업 도중 허리를 빼끗한 적이 있어 2일 정도 휴가를 낸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, 이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, 그 외 허리를 다친 적은 없다고 하였다. 근로자 K는 A사에 근무를 시작한지 약 1년 후부터 허리가 빠근하면서 양쪽 종아리가 뻣기는 요추신경병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며, 2007년 GIS 조립, 설치, A/S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, 상기증상이 잦아지면서 심해지기 시작하여 무거운 걸 드는 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2008년 10월 6일 퇴직하였다. 퇴직한 다음날인 2008년 10월 7일 신경외과에서 CT촬영으로 요추 4-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고, 진료 시 목의 빠근함을 호소하여 경추염좌 진단이 추가되었다.

4 | 결 론

근로자 K는 8년 7개월 동안 A사에서 조립, 설치, A/S 업무, 포장작업을 수행하며, 2008년 10월에 CT상 요추 4-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진료 시 추가적으로 경추염좌도 진단되었으나,

- ① 요추 4-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, 인간공학 및 산업의학적 평가 상 상기 근로자의 작업이 요통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부하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,
- ② 경추염좌의 경우, 근로자가 작업 중 외상을 받은 적이 없고, 인간공학적 평가 상 무리를 주는 작업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

근로자 K의 위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.